**Ted Hildebrandt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15**

 © 2020, 테드 힐데브란트
 저는 구약 역사 문학과 신학 과정을 수강하는 Dr. Ted Hildebrandt입니다. 민수기에 관한 강의 15번.
**A. 퀴즈 미리보기** [0:00-0:54]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사기와 룻기를 작업하게 됩니다. 재판관들과 룻이 함께 갑니다. 기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에게 돌아갈 수도* 있고, 기억 구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사기, 룻기, 기사, 우리가 겪는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후 군주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를 설정하게 될 사사기와 룻기의 책을 통해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B. 인종간 결혼과 구약** [0:55-6:03]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다루면서 겪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흥미롭고 어려운 개념을 다룰 것이므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인종 간 결혼에 관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종 간 데이트는 이제 우리 문화에서 인종 간 일이 큰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 시대에 과거에 있었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구스 사람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니라.” 이제 구스 사람 아내가 무엇입니까? 구스 땅은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 땅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어떤 색깔인가요? - 검은색. 그래서 모세의 형과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은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아기였을 때 강물에 떠내려갔던 누나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누나가 그를 돌보았습니다. 아론은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구스 사람 아내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구스 사람과 결혼하였음이더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곳이 에티오피아이고 모세가 재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들이 할례를 받은 후에 그와 결혼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 그의 아내는 이야기에서 사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고 모세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는데 그가 재혼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십보라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리암과 아론은 실제로 십보라를 별로 만나지 못했고, 따라서 그녀가 미디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화를 냈습니다 .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디안 사람이었지만 미디안 사람은 구스 사람으로 캐스팅될 수 있습니다. 구스 사람은 더 큰 범주입니다. 미디안은 부족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보라(Zipporah)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나는 그녀가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문제의 일부이므로 구스 사람은 아마도 에티오피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즉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너희 세 사람은 모두 회막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세 사람이 나오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아갔더라. 그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들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얻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그의 구스 사람 아내와 관련하여 인종 간 결혼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예언적 기능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주님 은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선지자가 너희 중에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비전에서. 그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며 꿈으로 그에게 말하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꿈을 꾸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선지자들이 환상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꿈은 밤에 잠잘 때 꾸는 것입니다. 비전은 당신이 완전히 깨어나서 비전을 볼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노라. 그러나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분은 내 온 집에 충실하십니다. 나는 그와 대면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지자들에게는 꿈과 환상을 보여 주지만 모세에게는 우리가 대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관한 꽤 큰 진술입니까?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선지자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머리와 머리를 맞대고 대면하여 가십니다.
 “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확하게 말하며 수수께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는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행위를 꾸짖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제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이러니한 정의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떠나시니라 구름이 장막 위에 떠오른즉 나병환자 미리암이 눈 같이 섰더라.” 당신은 “힐데브란트는 왜 그것이 아이러니한 정의라고 말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흑인 아내에게 화를 냈고 하나님은 “미리암아, 너는 백인을 좋아하느냐? 흰색을 좋아하시나요? 알았어, 내가 너를 백인으로 만들어줄게 미리암, 내가 너를 진짜 백인으로 만들어줄게.” 그분은 그 여자의 피부를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한 연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흰색을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순백색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나병에 걸리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유머러스한 아이러니로 받아들입니다.
 아론은 왜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Aaron은 여기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왜 여자를 선택하느냐, 미리암이 주요 대변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론이 나병에 걸린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론은 뭐죠? 그는 단순한 성직자가 아닙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다. 아론은 민족의 대제사장입니다. 만약 그가 나병에 걸리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 아론은 그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인종 결혼에 관한 구절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다인종 결혼을 비난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Aaron과 Miriam이 그렇게 했고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건을 다루셨습니다.
**다. 모세와 겸손과 민수기의 저자. 12:3** [6:04-13:14] 자, 여기서 제가 건너뛴 구절이 있는데, 좀 더 올려보고 싶습니다. 나는 12장 3절을 건너뛰었는데, 이 구절은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12장 3절에서 이 구절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이런 진술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나는 모세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여기에 진술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뭔가 충격을 받았나요?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었습니까? 정말 오만한 발언이겠죠?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자존심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자신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까?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가 매우 쉽지만 자신의 내면에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이 자존심을 문제로 다루고 있다면 그것을 스스로 발견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여기에 종교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며 그것은 좋은 대답입니다. 친구가 필요해요 ? 당신이 교만하고 오만한지 친구가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친구가 당신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젠가 나는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알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녀가 친절하고 온화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총과 빵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질문을 한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녀가 옳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내 안에 있는 자부심과 오만함의 윤곽을 볼 수 있습니까 ? 대답은 '예'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좋은 친구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까? 교만과 겸손을 조심하십시오. 이제 모세는 이런 말을 씁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그는 겸손하지만 지구상의 그 누구보다 겸손합니다. 농담하는 거겠죠? 오만한 발언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그냥 썼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이 구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결코 이 구절을 쓸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모세의 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펜으로는 이상할 것입니다. 조슈아가 여기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신명기를 끝낼 예정인가요? 신명기 마지막에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죽었어. 내가 들었던 바에 따르면, 당신이 죽은 후에 글을 쓰는 것은 꽤 어렵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의 끝 부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도 신명기의 끝 부분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여러 지점에서 논평을 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우러러보고 모세가 그의 멘토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의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고, NIV는 그것이 Joshua나 그와 유사한 것에서 삽입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그것을 괄호 안에 넣었습니다.
 이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전에 그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겸손이 정말 문제일까요? 그는 형과 누나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과연 겸손이 문제일까요? 겸손이 실제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말은 ' *오니* . 다른 방식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겸손하다”가 아니라 모세가 더욱 “억눌렸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으로 번역된 단어는 “억눌린”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을 “겸손” 대신 “억압받는”이라는 단어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둘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학대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더라.” 모세가 그런 말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관련이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음식과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겹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 형제와 자매가 내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제는 내 가족까지도 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 더욱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것을 “억압받는”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적합하고 여기의 문맥에도 정말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그 번역을 좋아합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NIV, NSRV, King James는 모두 "겸손"이라고 말하고 Hildebrandt는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실제로는 Dr.Wilson이 NIV의 일부를 수행했으며 Wilson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정직한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물러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겸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억압"될 수 있으므로 솔직히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번역에는 “겸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약간의 겸손을 갖고 나 자신이 “억압당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약 60-40 분할을 제공합니다. 나는 그것을 독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문맥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합니다.
**D.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들을 보내다** [13:15-14:14]

 우리는 13장과 14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2장 다음 부분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지구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13장과 14장은 모세가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낼 예정인데, 이 13장과 14장은 구약에서 매우 큰 장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약속의 땅을 정탐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요단강, 갈릴리 바다, 사해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은 지중해입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 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합니다 . 가데스 바네 아는 여기 시나이 광야 북부에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목을 긁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헤브론입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올라와서 오늘날까지 맛이 좋은 포도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이 포도를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E.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적인가, 아니면 동적인가?** [14:15-18:43] 그럼 약속된 것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본문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어떻게 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적인가, 아니면 역동적인가? 동적은 변화의 느낌을 더 많이 갖고, 정적은 하나님이 고정되어 있어 변할 수 없다는 느낌을 더 많이 갖습니다. 그럼 맙소사, 그 사람은 정적인 사람인가요, 아니면 역동적인 사람인가요?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변화하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과 앞뒤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변화의 일부로 사람들과 어떻게 생각하고 상호 작용하십니까 ? 변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 입니까? 바위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나요? 애완용 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이제 당신은 바위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쓰다듬을 수 있고, 옷을 입히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바위입니다. 바위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마친 후에도 바위는 여전히 바위라고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든지 그 남자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테니 상관 없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만일 그가 역동적이라면 하나님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신다고 말하고, 만약 그가 역동적이라면 어떤 의미나 영역에서 역동적이신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내 말은, 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내 말은, 그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아온 거 알잖아요. 좋은 건 정말 지루한 거 알잖아,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어쩌면 오늘은 나쁜 짓을 해볼지도 몰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좀 흥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악해지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신이 너무 커서 집을 수 없는 바위를 만들 수 없다면 그는 전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은 멍청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 바꿀 수 없는 특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선택을 경험하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힐데브란트는 이제 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일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모든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는 단지 트럭을 타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 전에 이러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 이것, 이것, 이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래 전에 선택하신 일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이것에 대한 몇 가지 질문입니다.
**F. 정탐꾼 파견** [18:44-21:45] 이제 민수기 13장: 땅에 거인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거기 올라가서 땅을 차지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사람을 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낼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보냈고 그들은 가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나갔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아름다운 땅(13장 26절)을 따라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봅니다. 나는 이 문구를 좋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전에 이 문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유를 들으면 "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것에 흥미를 느낍니다. 질문, 소들은 사막에서 어떻게 지내나요? 우유라고 하면 소의 우유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사막에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염소. 따라서 우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소의 우유가 아니라 염소의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 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거기 앉아서 항아리에서 쏟아내는 좋은 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달콤한 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우유는 염소 우유이고 이 꿀은 데이트 잼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대추야자를 가져다가 정말 달콤한 잼을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인들에게 "염소 우유와 대추야자 잼"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간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아서 맥도날드에 가자. 그러나 그것은 아마도 진실일 것이다. '염소 우유와 대추 잼'이에요. 바산 지역에는 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G. 가데스 바네아** [21:46-29:33]

 사실은 가데스 바네아 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 옛날에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Get Lost in Jerusalem 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제 아들 Zach와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남쪽 이집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검문소 반대편에 이집트가 있었고 이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왔고 나는 우리가 이 길로 운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이 있었는데 제가 이 길을 타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 아래에는 제가 올라가서 가데스 바 네아 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2000피트 높이의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가데스 바네아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 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어디로 방황했습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입니다. 이집트 에서 격추 할 수 있었지만 이 산 위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 약 20마일 아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문소에 차를 세웠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스라엘 군인이 있거나 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총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멀리까지 왔는데 이 남자가 나를 거기로 들여보내지 않네요. 나는 이 길이 거기로 내려가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저는 다시 길을 따라 0.5마일쯤 가는데 이 비포장 도로가 옆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저 검문소를 돌아서 비포장 도로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미국에서 멀리 온 게 아니니까 이걸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차를 타고 이 비포장 도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여기저기서 바위가 튀는 것을 알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본 적이 없는 검문소를 바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차선 도로로 돌아 갑니다 . 2차선이 아니고 1차선이군요. 우리는 약 50마일 아래로 차를 몰고 올라 이 산에 올라 가데스 바네아(Kadesh Barnea) 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 알겠어요. 이제 내려가는 동안 이집트 군인들은 험비를 타고 앞뒤로 운전하고 있었고 그들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고 내 아들은 나에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는 죽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0야드도 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들에 대해 겁을 먹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은 우리를 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관총 때문에 나를 괴롭혀서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고소공포증을 극도로 두려워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말 그대로 8피트 폭입니다. 그것이 전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으로 올라가고 이 곳에 왔고 몇 백 피트 높이의 낙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장자리에서 차를 바로 끌어 올리세요. 나는 차에서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Zach, 사진 찍자. 그는 차 문을 열었고 400피트 아래로 곧장 내려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에게 그런 짓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거기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가 똑바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 나타난 공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재미를 위한 진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약 150마일을 운전해서 내려가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제가 Beer Sheva 아래 검문소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검문소의 어느 쪽에 있는 걸까? 길을 내려와서 검문소까지 차를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는 무단 침입 금지 구역에 있고 검문소 반대편에 있어서 차를 세웁니다. 그래서 붙잡혔을 때 당신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아, 우리 너무 지쳤어. 이제 우리는 나가야 하는데 침입 금지 구역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정말 멍청한 미국인 역할을 하는 때입니다. 나는 단지 멍청한 미국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여기 Beer Sheva 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 뭐, Beer Sheva 는 여기야, 분명 손등처럼 그 땅을 알고 있지. 그 남자가 나를 쳐다 본다. Beer Sheva는 무슨 뜻입니까 ? 글쎄요, 우리는 Beer Sheva 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길을 잃은 게 틀림없어요 . 그게 어디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어도 이해합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나요?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 나는 그의 말을 들었는데, 그의 말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자 이 상사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 저는 Beer Sheva 로 갈 테니 따라오세요." 그래서 저는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따라가서 그 혼란에서 벗어났지만 실제로는 꽤 까다로웠고 별로 재미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 그들은 이 포도를 다 가져오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뚜기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13장 33절에 이 아낙 과 르바임 에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고 말합니다 . 땅에 있는 이 거인들을 기억하십니까? “ 아낙 족속 과 르바임 족속 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똑같아 보이느니라.” 저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우리를 메뚜기처럼 짓밟을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거기 거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제금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 나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을 때, 두 사람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까? 이 이름은 중요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하게 될까요? 갈렙님,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에 관한 내용을 읽어 보셨나요? 갈렙이 자신의 땅을 얻었고, 40세가 넘은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 Caleb, 나는 그를 "개 남자"라고 부릅니다. Caleb은 "개"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투사인데 , 노년에도 75세쯤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나는 어렸을 때처럼 나가서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영토를 점령한 노인일 때도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13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시며 우리 아내와 자녀가 노략을 당하게 하시나이까. 우리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제해 주신 것에 대해 그들에게 냉담하시겠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이 그 땅으로 들어가실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구제를 받고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H.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결심** [29:34-32:01]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힘으로 올라가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수는 항상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2대 10의 소수가 있고 소수가 옳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토크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응답(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가 어떻게 하는지 주목하라. 그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그것을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수사학적 질문을 가지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표징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평생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에 기적을 행하신다면 나는 평생 동안 믿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나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기적이 있어도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매일 만나가 나오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모든 표징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너(모세)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제 허리에도 고통을 주었습니다. 해. 하나님이시여 저를 나라로 만드소서.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맙소사.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아니, 틀렸어.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 나라를 쳐서 너(모세)로 그들보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쳐서 그들보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로 그들의 불신과 하나님을 멸시한 결과였습니다.
**I. 모세가 하나님과 논쟁하다** [32:02-35:05]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논쟁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리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일을 듣겠고 그들이 그 땅 거민에게 이 일을 고하리이다” 그런 다음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시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하리로다.” 즉,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달려 있으니, 이집트인들이 '야,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충분히 인도하셨지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는 없으셨다. 그 사람은 힘이 부족해서 사막에서 죽였어.' 그러니 하나님, 만약 당신이 그들을 사막에서 죽이신다면 이집트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판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의 논증의 두 번째 부분을 계속합니다. “이제 당신이 선포한 대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강하시며 강하시니 당신의 능력이 여기 있사오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며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시도다”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요? ?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당신의 성품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에 강하며, 당신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과 평판 때문에 그들을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0절을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지 않으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였느니라.”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구절을 명확하게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였다. 그러나 나의 삶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내가 애굽에서 행한 표적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노인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나요? 다음세대가 들어가고, 기성세대가 죽는다.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구한 대로 그들을 살려 주셨습니까? 예.
**J. 용서와 결과** [35:06-36:25] 그러면 용서의 본질에 관해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됩니까?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나는 용서받았고 모든 결과는 증발해버리므로 결과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그냥 놓아 주십니다. 결과는 없습니다. 내 동생이 내 팔을 찔렀던 때를 내가 말한 적 있었나요? 이제 질문입니다. 나는 내 형제를 용서했습니까? 예, 나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내 팔에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었나요? 예. 즉, 그는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결과가 있었습니까? 내 친구 에릭에 대해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술취한 남자가 젊은 사람을 죽입니다. 아들을 죽인 술취한 사람을 부모가 용서할 수 있을까? 있을 수있다. 아들이 아직 죽었나요? 그 결과가 여전히 남아 있나요? 그러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해도 결과가 뒤따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K.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까?** [36:24-37:35] 이제 돌아가서 여기서 다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가?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쳐서 너로 더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일곱 절을 기도한 후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신 대로 그들을 사하고 멸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염병을 내려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를 일으켜 나라를 이루려 하였느니라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음을 바꾸셨나요? 내 질문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숫자는 23번과 19번입니다. 어쨌든,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으며 제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옳고 그름이 아닌 마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L.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 [37:36-39:04]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가 그들을 쓸어버리시리라,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가? 나는 어렸을 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까? 예 그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이것을 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8절 뒤에 하나님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가 구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주의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주의 신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다. 솔직하게 말할 때가 있고, 나는 매우 지루한 사람이고, 심지어 아내가 내 말을 듣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자 그분은 “당신이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M. 여러 상품 선택 시** [39:05-41:26] 학생 질문: 그래서 우리는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고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실 수 없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힐데브란트 이력서: 이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완벽함과 좋음을 단수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상품이 여러 개이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가 틀렸고 하나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두 가지 상품이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바꾼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단지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좋은 선택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완벽한 것은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는 완벽함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래는 단 하나의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미래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허용하고, 또한 신이 인간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까? 그렇다면 그 미래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N. 불변하신 하나님** [41:27-46:23] 자, 한나님, 민수기 23.19를 뽑아주세요. 말라기를 한 사람이 있나요? 그녀는 한 구절을 읽을 것이고 여기서 나와 모순될 것입니다. 좋아, 나는 내 자신과 모순될 것이다. 여기 민수기에 있는 23장 19절을 성경에서 찾아보라. 우리는 말라기로 가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뜻을 바꾸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방법과 인간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이 여러 상품 사이에서 마음을 바꾸면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언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변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까? 그래서 그는 약속을 하면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 때마다 그것은 항상 약속입니까? 입 열 때마다 약속이야? 그런데 이제 약속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에서 약속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의 인생 약속 중 일부가 있습니까? 예, 하지만 당신은 종종 다른 방식으로, 온갖 종류의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구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과 씨와 축복을 주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와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 “어떻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메시야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내려왔을 때 사마리아를 통과했을 수도 있고 블레셋 평원을 통과했을 수도 있었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 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까 ?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요,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인간의 유연성과 인간의 선택을 허용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오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13장 13절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리라.” 제가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if 문을 하실 수 있나요? 당신이 이것을 하면 나도 이것을 하고, 당신이 저것을 하면 나도 저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조건문, 즉 if-then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여러 개의 if- then을 가질 수 있습니까 ? 그들이 이 일을 하면 나도 이 일을 하리라. 사울의 경우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두 가지 길을 갖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의 그 구절은 훌륭합니다. 21장에는 그일라 성에 관한 또 다른 훌륭한 구절이 있습니다 . 거기에 도착하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과 정해져 있습니까? 고쳐지는 부분도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양성을 허용하고 인간의 자유를 허용합니까?
**O. 하나님의 신비와 경이로움에 대한 반추** [46:24-56:35] 이제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힐데브란트 당신은 자유 의지 대 예정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솔직한 진실은 제가 하려는 것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조건문을 어떻게 다루실 수 있는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성경을 인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만약”을 주시며 “사울아, 네가 내게 순종하였더라면 내가 너를 영원히 왕으로 삼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지금 나는 다중 완료형에 대한 나의 추측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는 영원히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조건문 if 문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조건문은 에덴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원에 나무가 있는데, “안 먹어도 좋아. 만약 그것을 먹으면 당신은 나쁘고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인간과 관련된 if 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추측으로는 if 문은 선택을 하시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이 언제나 괜찮습니까? 그건 그렇고, 나는 누구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을 혼란시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성경의 오류를 보여주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을 혼란시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제가 하려는 일인가요?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 즉 하나님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서 나가겠다는 말보다는 그게 궁금하네요. 또 다른 방법은 아내에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6년이 넘었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이해합니까?-아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머리 속으로 들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36년이 지난 지금쯤이면 제가 단서를 갖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제 조치를 취한다면 그 한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또 다른 움직임은 와서 당신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은 사랑에 빠진 누군가를 향한 움직임인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그 경이로움이 우리를 그분께로 끌어당겨 "나는 탐구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생각을 추적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그가 사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경이로움은 우리를 그분에 대한 헌신과 추구로 이끈다. 그 경이로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혼란보다는 신비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추구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직책을 맡았고 하나님이 매우 역동적이신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역동적인 쪽으로 더 많이 나아갔지만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예정론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주로 이와 같은 텍스트 때문에 수년에 걸쳐 그것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사물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이나 사물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백성을 대신하여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세가 그렇게 할 것임을 알았고, 자신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들 그걸 보나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모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방금 만들어낸 것인가요? 그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측이다.
 이제 이것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처럼 묘사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간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제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지만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는 인간적인 방식을 말씀하실 뿐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실제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종류의 구절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이 전체 논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이사야 40장 28절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장 중 하나이며, 이사야 40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시니라. 그는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명철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느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밤새도록 논의하는 황소 회의에는 정말 효과적이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내 이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편안해질 수 있습니까 ?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이 됩니다 . 즉,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담는 상자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상자들을 날려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생애 동안 그를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신비와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모세의 겸손과 같은 모순 중 일부는 번역 문제이며, 솔직히 말해서 그 중 일부는 이해하기 때문에 꽤 쉽습니다. 다른 모순은 해결 가능한 논리적 모순과 같은 것이며 다양한 유형의 솔루션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 일부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난처하게 여기는 예정 대 자유 의지와 같은 다른 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시점이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으로 옮겨가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한하고 신은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 인간성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한이 무한의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무한의 일부를 지도화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무한의 일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어떤 지점에서는 그의 이해가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를 포용하거나 철저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탐구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입니다.
 **P. 고라의 반란** [56:36-62:01]

 이제 이 고라의 반역을 극복합시다 .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고라 16장에 보면 , 다단 과 아비람은 레위 사람들로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야, 너와 아론은 그렇게 화끈한 놈이 아니구나. 우리도 레위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하다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당신이 하나님께 그토록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별하고 분리되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고라는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도자로서 갖고 있는 권리 중 일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모세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세에게 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고 진노하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를 내는데 16장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는 “ 그들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말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새로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중개자의 역할입니다. 일반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이지만 이 경우 그는 반중개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머 감각이 있으신가요 ? 글쎄요, 이것은 일종의 아이러니한 유머 감각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에게 오셔서 “너는 분리되고 특별해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모두 분리시키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갈라놓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영원히 헤어지게 할 것입니다.” 땅이 열리고 그들을 모두 삼켜 버립니다. wham-bam 바로 무덤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헤어지고 싶느냐? 내가 널 갈라놓을게.” 그것은 일종의 미리암과 같습니다. “백인 미리암이 되고 싶나요? 알았어, 널 완전히 하얗게 만들어줄게.” 여기, 당신은 헤어지고 싶어합니다. 알았어 내가 당신을 헤어지게 해줄게.” 땅이 갈라져 그들을 모두 삼키고 고라는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것은 지도자들 사이의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으며, 지도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지도자 아래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 지도자를 약화시키게 될까요? 그들은 리더에게 온갖 나쁜 동기를 투영합니다.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모세가 지도자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모세야,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성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니요, 모세는 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훼손하고 나쁜 말이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조심해야 하며 이 구절은 그러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모세 는 중재자가 아닌 반중개자로서 이 새로운 역할을 맡습니다. 민수기 전체를 통해 그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면서 중재했습니다. 중재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나에게는 네 명의 자녀가 있는데,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고, 내 아이들을 위해 단 한 번만 기도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매우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냥 좋아요 하나님 매일 같은 기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나는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남은 삶은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이들이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거짓말을하고 있습니다. 작년 바로 이때 내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매일 나가서 총에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산산조각이 난 친구가 있어서 그 일부를 주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잊을 수 있기를 바라며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람이 결코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나빴습니다.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노인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아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제발 그 아이를 살려주세요.” 질문 나는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까? 나는 간청했다. 나는 간청했다. 저는 작년에 기도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려주셨는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의 머리는 온통 엉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야기만 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여전히 불안해하는 많은 일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까? Q. 선지자이자
**스올 로서의 모세** [62:02-66:14]

 이제 이 사람은 선지자인 모세가 단기 예언을 합니다. 단기예언과 장기예언이 있습니다. 모세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고라 인데 너희가 나를 치면 내가 참 선지자이면 땅이 갈라져 너희를 삼키리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추측해보세요.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는가? 예. 그리고 그들은 삼켜집니다. 모세는 그의 말이 그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민 16:33) 그들을 구덩이에 삼키게 됩니다. NIV에서 번역한 대로 그들은 산 채로 “무덤”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 스올 ”입니다. “ 스올 ”은 지하 세계였습니다. 일종의 어두운 단어입니다. “무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두운 세계, 그림자의 영역, 사후 세계와 같은 그 너머의 무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땅을 열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죽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옥에 대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지옥관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옥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어두컴컴해요. 그들은 내세에 대한 견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별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나요? 지옥도 마찬가지다. 딱히 명확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신약 시대에는 불이 타버린 곳으로 가는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과 같은 일들, 불타고 고통받는 장소들과 같은 예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성서에서는 실제로는 어둡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 스올 ” 이라는 단어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때로 “ 스올 ” 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을 무덤 속 땅에 묻었다는 뜻일 때도 있고, 때로 이 단어는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유대인의 이해가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지옥,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영구적인 분리를 생각하지만, 이 “ 스올 ” 이라는 용어의 문제점은 때때로 그것이 단지 사후 세계를 의미할 뿐 천국이나 지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한 구별을 하는 반면, 당시 유대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둡게 남겨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진실은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스올 ”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 문맥. 어떤 맥락에서 그것은 그들이 단지 그들을 무덤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은 차별화되지 않은 사후세계라는 불명확한 의미를 내포하는 영역이 될 것입니다.
**R.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66:15-71:32]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배우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삼켜진 후에 41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기에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이것도 튀기자. 이제 모세는 역할을 바꿉니다. 그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혀 배우지 못합니다 . 이제 당신은 내가 젊은 여성이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온갖 문제를 안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모두 고개를 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 저는 정말 심각합니다. 핵심 수준에서 사람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합니까? 이제 저는 에릭의 말이 옳았다는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성령께서 사람의 핵심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 하지만 사람의 핵심 변화가 정말, 정말, 어려운가요? 좋은 여자가 남자를 바꿀 수 있을까? 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정말 드문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나 젊은 여성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는 이 사람을 바꿀 거야”라고 말하면 나는 항상 속으로 “순진하다” 고 히죽히죽 웃습니다 . 나는 누구도 순진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합니다.
 변화 중...다른 예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에 있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끊고 싶어하는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아주 간단한 담배를 피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담배를 원하고 당신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몸이 바뀔 수 있나요? 질문: 그는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요?-아니요. 보시다시피 그것은 50,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가 사람들에게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심장우회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2년 후 대수술을 받은 후 그 중 90%가 심장 우회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람들은 이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변할 수 있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변화의 시대에 들어섰나요? 당신은 성장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25살이 되어서 화석화됐나요? 사실, 당신의 정직한 진실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당신이 눈을 깜박이고 당신들의 나이가 18-19세라는 것을 아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얼마나 빨리 지나갔나요? 다시 눈을 깜박이면 갑자기 25세가 되어 고든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직업상 다시 눈을 깜박이면 35세가 되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눈을 깜박이다가 멈추고 잠시 기다리면 다시 한 번 눈을 깜박이면 당신도 나 같은 늙은이가 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컨트리 노래 아는 사람 있나요? 결론은 '깜빡이지 마세요' 입니다. 노래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나요? 그게 어떻게 여기에 들어맞나요? 인생은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데,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당신은 미래를 선택하고 형성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놀라운 시대입니다! 이 멍청한 맥 컴퓨터 때문에 사용하기 싫은 만큼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떠났다. 질문, 그는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나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세상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 최고의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세상을 좋게 바꾸세요! 세상을 악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일을 하려면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한다는 뜻인가요 ? 아니요, 늦잠을 자는 것이 더 쉽습니다. 당신은 일을 하고, 그 일을 쫓습니다.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온갖 종류의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는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만찬과 같으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전하세요.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키세요. 좋은 일에 전념하고 그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S. 모세와 반석** [71:33-77:12]

 그렇다면 모세가 바위를 쳤는데, 심지어 그가 바위를 불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20장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실제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죄로 그를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건너뜁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고 죄를 범하여 심판을 받는 20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첫 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니라.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이 장은 미리암의 죽음으로 처음 시작됩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큰 일이었습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바구니를 타고 떠내려갈 때 그를 훈련시키는 일을 도왔던 누나였습니다. 그녀는 사망. 그런데 20장은 어떻게 끝나나요? 아론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 그러면 20장에는 모세가 20장 중간에 무엇을 합니까? 그는 바위를 쳤다. 20장은 모세에게 정말 나쁜 날입니까? 그의 여동생이 죽고, 그의 형도 죽고, 그는 바위에 부딪힌다. 내가 오경을 쓰고 있었다면 이 부분은 생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바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위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를 바위에 부딪혔다고 그토록 세게 못 박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을 친 것 때문에 그토록 혹독하게 심판하셨을까요? 바위에 부딪히는 게 뭐가 문제야? 물을 얻기 위해 막대기로 바위를 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돌을 쳤는데 뭐가 문제였나요? 실제 문제는 바위를 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바위를 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문제는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너희가 나를 충분히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려거든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들이지 말지니라'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방황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이 사해 지역을 방황할 것입니다. 그는 에릭이 있는 바로 여기 옆으로 올 것입니다 .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가 죽을 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는 산 너머로 이스라엘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거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는 바위를 쳤다. 왜?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큰 문제인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이거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심판하십니까 ? 그 생각과 뜻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모세의 마음은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은 육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그의 마음은 옳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더의 책임이다. 지도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평가를 받는가? 지도자는 더 가혹하게 평가됩니다. 나는 항상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악몽을 꾼다. 내 모든 학생들, 즉 너희들이 오고 있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은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며 나를 옆으로 데려갔다. 나는 보고 있고 내 학생들은 모두 천국으로 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힐데브란트는 수업 시간에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네가 했던 말도 안 되는 말을 모두 기억하니? 글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 밖에 있어요. 학생들을 모두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는 동안 저에게 손을 흔들어 보세요. 여러분 중 한 명이 중재자처럼 "제발 그를 들여보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여기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나는 멍청하고 미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게 걱정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수업시간에 했던 모든 멍청한 말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십의 자리를 맡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인지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날려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에는 결과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혜의 근본적인 것 중 하나입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정말 멋진 점은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오늘이 중요합니까?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예! 오늘은 중요하다 ;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그렇게 풍요로운가, 매일을 잡아라. 매일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그날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 몇 가지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그것은 그의 인생 40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T. 장대 위의 뱀 (민 21)** [77:13-79:44]

 민수기 21장에서 사람들은 다시 불평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불평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시자 독사가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장대에 놋뱀을 올려놓고 “너희를 문 이 뱀을 보라. 장대를 보면 보고 살아요.” “내 형제여, 보고 살아라”라는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래된 복음 찬송가는 "보고 살아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늘에서 내려왔나요? 사람의 아들. 니고데모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둥에 달린 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해 주는가? 장대 위의 뱀이 인자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뱀인데, 여기서 예수께서는 인자가 장대 위에 놓이겠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해보자! 자, 수업 마치고 봐요 .

 저는 구약 역사 문학과 신학 과정을 수강하는 Dr. Ted Hildebrandt입니다. 민수기에 관한 강의 15번.

 헨리 하겐(Henry Hagen)이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2